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성경이야기

여러분, 혹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서 울어본 적 있나요? 정말 아끼던 장난감이나 인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요. 오늘 말씀에도 아주 슬퍼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천사들이 있었고,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을 옮겨갔어요”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한 사람이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리아는 바로 알아보았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라고 외쳤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슬프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친구와 싸워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시험이 어려워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기쁨을 주시는 분이예요.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살아 계세요!”

예배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다 같이

말씀봉독 요한복음 20:11~18절 다 같이

설교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내 마음에 새겨진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슬플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1. 마리아는 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고, 누구를 만나게 되었나요?
2. 나는 언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